



11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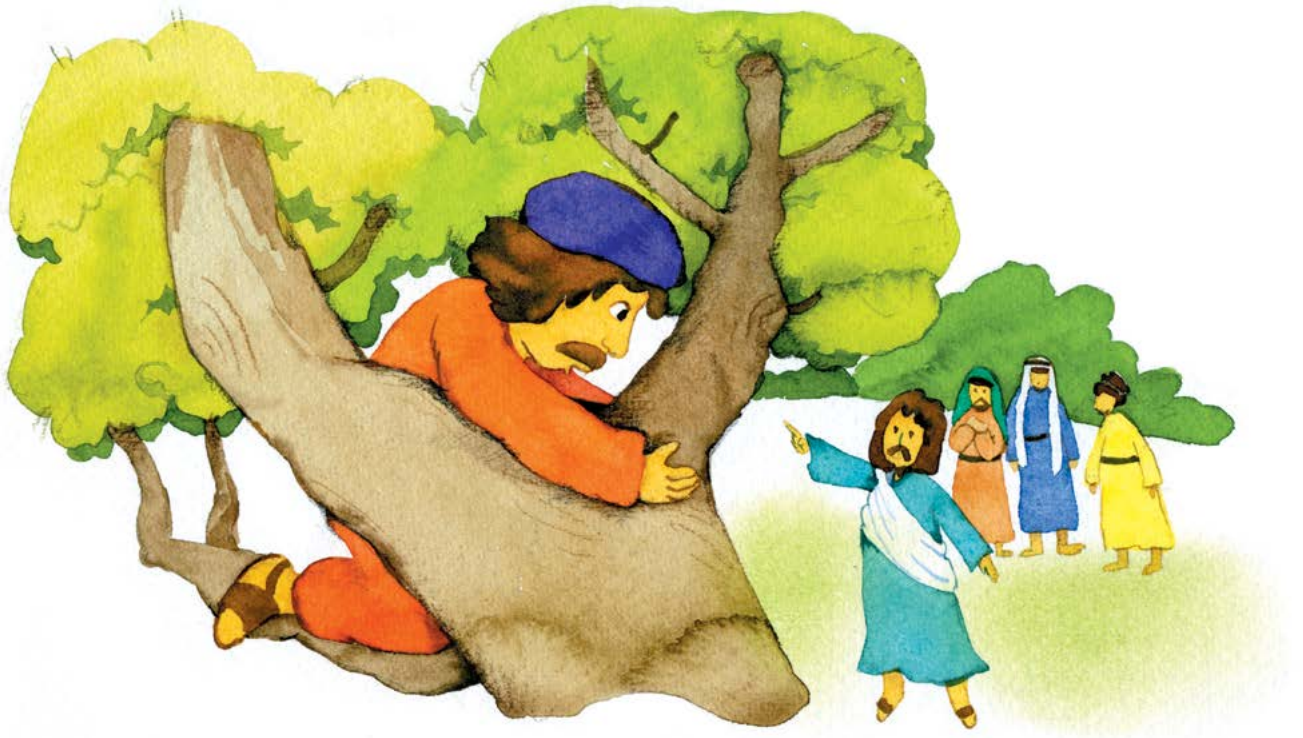
여리고라는 마을에 키 작은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였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세금: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돈.

*세리: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발을 동동 구르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남우에게는 아주 먼 곳에 사시는 작은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의 동생인 작은아버지는 남우의 생일 때마다 언제나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에는 남우를 참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고 또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우가 한 살씩
나이를 먹을 때마다 필요한 선물들도 보내 주셨어요.



남우는 작은아버지를 사진으로는 보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작은아버지가 남우네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작은아버지가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남우는 점점 더 설레었어요.



즐거은 활동



그림과 글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



•



•

•

나무위에

•

•

키가

•

•

삭개오를

•

•

작아요

•

올라갔어요

•

부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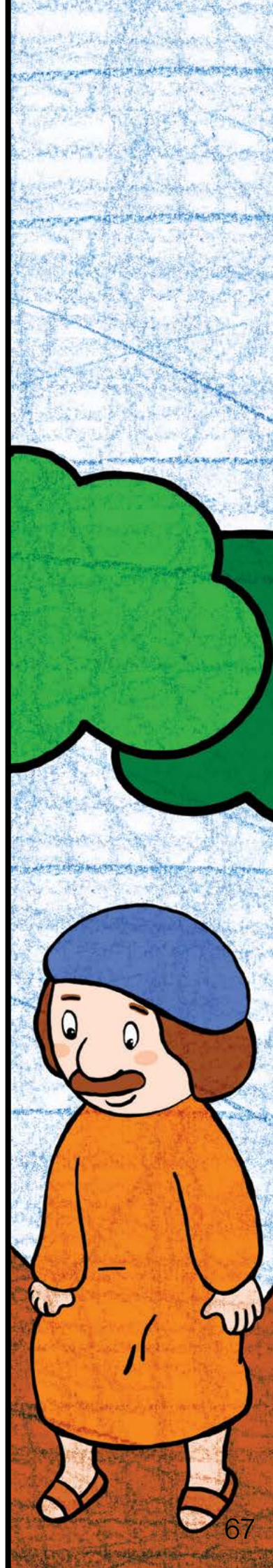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 ① 68쪽의 예수님과 뽕나무 앞을 색칠하세요.
- ② 67쪽 자르는 선을 따라 자르고, 반으로 접으세요.
- ③ 풀칠하는 곳에 풀칠을 하여, 68쪽 뽕나무 위, 붙이는 곳에 붙이세요. 반으로 접은 그림을 위로 젖히면 삭개오가 보입니다.

자르는 선 —————
 접는 선 - - - - -





풀이
곳

자르는선 ———

접는선 - - - - -

풀칠하는
곳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가복음 19장 6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